



김정훈 | 부산장신대

##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히브리어 구약성경 비평편집본(*BHK*<sup>2</sup>, *BHS*, *BHQ*)<sup>1)</sup>에서 주 본문(Haupttext) 구실을 하는 필사본은 1008년에 필사된 레닌그라드 사본(Codex Leningradensis B19<sup>A</sup> [L])이다. 비록 더 오래된 몇몇 필사본들이 있기는 하지만,<sup>2)</sup> 레닌그라드 사본은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 [MT])의 전통을 잇는 벤 아셰르(Ben Asher) 가문의 필사본 가운데 유일하게 온전한

---

1) 지금까지 독일성서공회(Deutsche Bibelgesellschaft)에서 출간된 *BHQ*(*Biblia Hebraica Quinta*)는 다음과 같다: Carmel McCarthy, *BHQ-5, Deuteronomy* (2007); A. Gelston, *BHQ-13, Twelve Minor Prophets* (2011); J. de Waard, *BHQ-17, Proverbs* (2009); J. de Waard et al., *BHQ-18, Megilloth* (2004); Davi Marcus, *BHQ-20, Ezra and Nehemiah* (2006).

2) 가령, 925년에 필사된 알렙포 사본(Codex Aleppensis [A])은 오경 전체와 다른 몇몇 책들이 전해지지 않으며, 10세기의 필사본인 Codex Or. 4445 (B)는 오경만 담고 있고, 895년에 필사된 카이로 사본(Codex Cairensis [C])은 전기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형태로 보존된 필사본이다. 이 중세의 필사본이 전하는 본문의 형태는 당연히 더 오래된 전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놀라울 정도로 MT의 형태를 지지하는 쿨란 본문(특히, 1QIsa<sup>b</sup>와 와디 무라바앗[Murabbaat]에서 발견된 본문들)의 발견 덕분에 레닌그라드 사본은 한편으로 그 본문의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레닌그라드 사본 등이 전하는 MT와는 다른 본문의 전통을 보여주는 쿨란 예레미야서 단편들(4QJer<sup>c</sup>나 4QJer<sup>b,d</sup>)과 같은 본문증거(Textzeuge) 때문에 헬라/초기 유대주의 시대의 MT이 지금과 같이 지배적이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입증되었다.<sup>3)</sup> 곧 당시에는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지 않은 채 다중적인(multiple) 상태로 존재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다양한 본문의 형태들이 각각 독자적인 전승을 이어가는 동시에 유동적인 상태(flexible)로 공존하고 있었다.<sup>4)</sup> 이로 말미암아 MT와 쿨란 본문, 칠십인경(이하 LXX)의 번역 대본(Vorlage), 또는 LXX의 다양한 본문 형태들 사이의 이형(異形; variants)이 생겨났다.

본 연구에서는 주전 2세기 무렵부터 본격화된 헬라/초기 유대주의 시대 구약성경 본문의 다중성(multiplicity)과 유동성(flexibility)을 이 시대의 필사본 단편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려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구약성경 두루마리 단편의 역사는 1952년 여름

3) 본문의 용례들을 통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231-232, 319-327쪽을 보라. 짧게 설명하자면, 4QJer<sup>c</sup>가 MT의 전통과 가깝다면, 4QJer<sup>b,d</sup>는 칠십인경 예레미야서의 대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본문의 형태와 가깝다.

4)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로, S. Kreuzer, "Von der Vielfalt zur Einheitlichkeit – Wie kam es zur Vorherrschaft des Masoretischen Textes?", in A. Vonach et al.(eds.), *Horizonte biblischer Texte – FS Josef M. Oesch zum 60. Geburtstag* (OBO 196; Fribourg/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117-129; 본문 분석을 통한 보기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Kim, Jong-Hoon,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Kim, Jong-Hoon, "The Tradition of Ketib/Qere and its Relation to the Septuagint Text of II Samuel", *ZAW* 123 (2011), 27-46.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sup>5)</sup> 한 베두인이 “예루살렘 프랑스 성서대학”(École Biblique Française de Jérusalem)에 건축 두루마리의 일부분을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는 나머지 부분도 손에 넣게 되었다. 이 두루마리가 원래 어디서 필사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이어진 발굴 결과, 사해 서부에 위치한 마사다(Massada)와 엔 게디(En Gedi) 사이에 있는 나할 헤베르(Nahal Hever=Wādi Habra)의 한 동굴(일명 “Cave of Horror”)에서 이 두루마리의 다른 단편들이 발견되면서, 적어도 마지막으로의 나할 헤베르의 이 동굴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는 낡고 별레 먹어 몇몇 단편들(fragments)만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을 베두인들이 함부로 다루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두루마리는 놀랍게도 주전 1세기-주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sup>6)</sup> 헬라어 소예언서 본문을 담고 있었다.<sup>7)</sup> 결국 이 두루마리는 발견지의 순서와 장소, 그리고 본문의 특징에 따라 “8H<sub>ev</sub>XIIgr”(이하 H<sub>ev</sub>)라는 기호로 표시하기에 이르렀다.<sup>8)</sup>

본 연구에서는 헬라/초기 유대주의 시대에 필사된 이 두루마리 단편의 본문 형태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쿠파란 히브리어 본문과 LXX의 다른 본

5) 이 두루마리의 발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D. Barthélemy, “Redécouverte d’un chaînon manquant de l’histoire de la Septante”, *RB* 60 (1953), 18-29와 D. Barthélemy, *Les Devanciers d’Aquila* (S,VT 10; Leiden: Brill, 1963), 163-169를 참조하라.

6) 이 두루마리의 발견 장소인 “Cave of Horror”에서는 가족들로 보이는 유골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바르-코흐바 혁명 당시 로마군에게 죽임 당한 사람들로 추정한다. 그 이후에는 폐허인 채 방치되었으므로 주후 135년이 하한선(ad quem)이 된다. 이 필사본 단편의 연대 추정에는 고대 글꼴(paleographic evidence) 비교법이 사용되었다. 연대 추정에 대한 여러 논의와 결론은 E. Tov/R. Kraft (eds.), *The Greek Minor Prophets Scroll from Nahal Hever (8H<sub>ev</sub>XIIgr)* (DJD VIII; Oxford: Clarendon Press, 1990), 22-26을 참조하라(이하 DJD VIII).

7) 적어도 55단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두 명의 필사자가 필사한 39단(column)의 단편으로 나눌 수 있는 이 두루마리가 담고 있는 본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J”는 남아 있는 않은 단 또는 부분을 뜻한다): 1-4단(??)-요나, 4-[12]단(미가), [12]-16단(나훔), 16-20(하박국), 20-[25](스바나), [25]-[28](학개), 28-[B18](스가라).

8) DJD VIII, 같은 곳.

문 형태들을 비교 분석하여 H<sub>ev</sub> 본문의 특징을 재검토해 보려 한다. 이로써 앞서 언급한 대로 헬라/초기 유대주의 시대 구약 성경 히브리어 본문 형태의 다중성(multiplicity)과 유동성(flexibility)을 입증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두루마리 전체 본문을 면밀히 조사해야 충분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선 H<sub>ev</sub>의 본문이 상대적으로 본문 비교에 충분한 분량이 보존되어 있고, 본문 이형(variants)의 형태도 다양한 하박국 본문을 보기로 삼는다.

## 2. 선행 연구와 본문 증거

### 1) 선행연구

(1) H<sub>ev</sub>의 첫 출간을 도맡았던 바르텔레미(D. Barthélemy)는 자신의 책 “아quila의 선행자”(Les Devanciers d’Aquila, 1963)<sup>9)</sup> 후반부에서 이 두루마리 단편의 본문을 분석하였다.<sup>10)</sup> 자신의 분석을 바탕으로 바르텔레미는, 이 두루마리가 담고 있는 본문은 주전 2-1세기 당대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원어 중심의 직역을 지향하여 LXX 본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던 이른바 “카이게 개정본”(Kaige Recension)<sup>11)</sup>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H<sub>ev</sub>에서도 카이게 개정본의 대표적인 번역기법을 어렵지 않

---

9) 위의 각주 5를 참조하라.

10) 참조, D. Barthélemy, *윗글*(1963), 179-245.

11) “카이게 개정본”(Kaige recension)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바르텔레미가 처음 사용하였다. 그러나 바르텔레미가 만든 용어는 “groupe καίγε”였다. 이는 히브리어 “כַּיִגֵּי”([김브김]/또한)을 헬라어에서 문맥이나 구문에 상관없이 “καίγε”(카이게)로 옮기는 경향에서 비롯하였다. 바르텔레미가 분석한 카이게 개정본의 번역 특징은 D. Barthélemy, 위의 책 (1963), 48-80;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1-1; 서울: 바오로딸, 2009), 128-141을 참조하라.

12) D. Barthélemy, *윗글*(1963), 198-202, 특히 “Les concordances précédentes sont cependant assez claires pour établir que notre recension, manifestement antérieure à Aquila, se rattache au groupe kaige dont elle confirme la cohérence.”

게 찾아볼 수 있다(가령, 합2:16 MT תַּחֲתַיִם/LXX καὶ σὺ/Hev KAI ΓΕ ΣΥ). 이런 점에서 바르텔레미의 연구는 LXX 본문 형태와 역사 연구에서 매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곧 이런 형태의 원어 중심적 개정 경향이 아무리 늦어도 주전 1세기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다.<sup>13)</sup> 하지만 바르텔레미는 후대의 이차 번역본들이나 교부들의 인용을 제외하고는 MT와 LXX(Codex Washintonensis 포함), 그리고 Hev 본문만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카이게 개정본의 특징 말고 더 다양한 양상을 관찰하는 데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는 바르텔레미의 목적이 Hev 본문의 개괄적인 특징을 통해 카이게 개정본의 고대성을 밝히고, 이 개정본의 장본인을 주후 1세기 랍비 힐렐(Hillel)의 제자였던 요나단 벤 웃시엘(Jonathan Ben Uzziel)로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4)</sup>

(2) 바르텔레미 이후 Hev는 1990년에 가사야 와디 쿰란의 동굴을 비롯한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문서들의 공식 편집본인 “Discoveries in the Judean Desert”(DJD)의 하나로 출간되었다(DJD VIII). 이 책에서 편집자들은 바르텔레미보다 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Hev 본문을 재구성하고 분석하였다.<sup>15)</sup> 그리고 MT와 LXX을 견주며 본문 재구성과 본문 비교를 위한

13) 카이게 개정본은 히브리어 자음 본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헬라/초기 유대주의 성서해석의 영향을 받아 원어 중심의 일대일 직역을 원칙으로 하여 구약성경을 전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주후 3-4세기 사무엘-열왕기의 LXX 대문자 필사본(B A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 현상이었는데, 바르텔레미의 이 발견으로 카이게 개정본의 시기가 주전 1세기 이전으로 앞당겨졌다. 이 시기 유대주의 성서해석 원칙에 대해서는, 권터 스텐베르거, 「미드라쉬 입문」(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II-2; 서울: 바오로딸, 2008)과 김정훈, “칠십인경 사무엘-열왕기서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 『Canon & Culture』 3권 1호 (2009), 181-210, 그리고 김정훈, “칠십인역 헬라어 구약성경의 기원과 그 영향: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를 중심으로”, 『부산장신논총』 11 (2011), 24-47을 견주어 보라. 바르텔레미 이전에 이런 번역 경향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주후 2세기의 보충 번역으로 여겼던 테커레이의 이중번역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에 대해서는, H. St. J. Thackeray, *The Septuagint and Jewish Worship*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1)을 보라.

14) 참조, D. Barthélemy, 위트글, 148-157.

15) 바르텔레미는 스물네 단(column)으로 본문을 재구성하였는데(D. Barthélemy, 앞의 책 [1963], 170-178),

각주를 달아 놓았다.<sup>16)</sup> 이 편집본의 핵심적 유용성은 이어지는 본문 분류와 분석에 있다.<sup>17)</sup> 이 분류와 분석은 크게 번역 기법, 철자법 상의 특수성, MT·LXX 본문과의 관계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열여섯 가지의 세부 구분 항목으로 H<sub>ev</sub> 본문의 모든 용례를 포함하였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점이 있다. 먼저 바르텔레미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본문을 분석하였으면서도 이 “복잡한”(complicated) 분류체계에 대한 보충자료로 다시금 바르텔레미의 연구를 참조하도록 지시한다.<sup>18)</sup> 이는 본문 형태 분류를 하지 않은 채 이형들(variants)의 자료 분석에만 의존하는 연구방법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곧 헬라/초기 유대주의의 본문 양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다른 소예언서 쿨란 본문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책은 H<sub>ev</sub>의 본문 번역 기법과 대본 재구성에만 제한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3) 소예언서의 본문을 쿨란 성경 본문 증거의 바탕에서 조명한 것으로는 2004년에 나온 “Biblia Qumranica”(BQ)를 언급할 수 있다.<sup>19)</sup> 기본적으로 이 편집본은 쿨란 소예언서 성경 본문을 한 가운데 두고 왼쪽에는 LXX(와 쿨란 헬라이어 본문), 오른쪽에는 MT을 대조해 놓았다. 그리고 본문 증거들 사이에 이형이 있을 경우 각각 해당 낱말을 네모 음영으로 처리해서 알아

---

여기서는 두 명의 필사자가 필사한 39단의 단편으로 확장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 본문도 바르텔레미보다 더 많은 본문을 인식해 냈다. 하박국서의 본문에서 보기 하나를 들어 보자. 아래 그림은 합 2:13-15의 본문을 담고 있는 DJD VIII Col. 18a 단편이다(PLATE XI).

이 단편에서 바르텔레미는 셋째 행에 있는 합2:13의 “κεῖνον”에서부터 본문 인식을 시작하였다(바르텔레미, 윗글, 175). 하지만 DJD에서는 그 위에 있는 “M”과 “THT[”도 포함하여 본문을 재구성하였다(DJD VIII, 54-55).

16) DJD VIII, 83-98(하박국 본문은 91-94).

17) DJD VIII, 99-158.

18) DJD VIII, 158.

19) B. Ego et al.(eds.), *Biblia Qumranica, Vol. 3B Minor Prophetes* (Leiden/Boston: Brill, 2005)(이하 BQ), 하박국서의 본문은 이 책 127-139를 보라.

볼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 하박국서는 “LXX, Hev, 1QpHab, MurXII, MT” 순서로 본문이 대조되어 있다. 하지만 이 편집본은 이형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성의 기초 자료로서 가지는 유용한 언급할 수 있다.<sup>20)</sup>

(4) Hev의 본문 증거가 본문 비평에 체계적으로 사용된 최근의 연구로는 우리가 첫머리에 언급한 “Biblia Hebraica Quinta”(BHQ) 소예언서 편집본을 들 수 있다.<sup>21)</sup> LXX의 필사본들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던 이전 편집본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BHS)<sup>22)</sup>와 달리 BHQ에서는 Hev의 중요한 본문 이형들을 분류하여 평가하였다.<sup>23)</sup> 이 편집본은 비교 가능한 모든 본문 증거들을 바탕으로 본문 이형의 형성을 재구성하고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더욱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본문은 본문비평 해설을 따로 제공한다.<sup>24)</sup> 그러나 이 편집본은 MT가 중심이다 보니 헬라어 본문 증거들의 사용에 소극적이다. 결국 Hev의 모든 경우를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 헬라어 본문 증거들 사이의 이형들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말이다. 더욱이 헬라어 본문의 이형들을 되도록 번역자의 수정이나 풀이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Hev가 기본적으로 원어중심의 번역을 지향하는 카이제 개정본을

20) 쿨란성경 히브리어본문 편집본으로는 E. Ulrich(ed.), *The Biblical Qumran Scrolls, Transcriptions and Textual Variants* (Leiden: Brill, 2010)을 들 수 있다. 이 편집본은 쿨란 히브리어 본문을 중심으로 나머지 이형들을 비평 각주로 돌리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BQ와 다른 정렬의 동일한 편집 형태라 할 수 있다.



21) A. Gelston(ed.), *The Twelve Minor Prophets* (BHQ 13;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0)(이하 BHQ).

22) K. Elliger(ed.), *Liber XII Prophetarum* (BHS 10;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0/1977), 991-1086(이하 BHS).

23) BHQ가 내린 Hev에 대한 본문 평가를 하박국 본문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음 본문의 차이(abbr; err-graph; subst; via [히브리어 대본]) ② 같은 자음의 다른 읽기(differ-div; differ-vocal) ③ 번역기법에 따른 이형(assim-ctext; exeg; facil-seman; facil-styl; facil-synt; ign-lex; implic; lib-semant; transl). 줄임말에 대한 설명은 BHQ, XX-XXVI를 참조하라.

24) 하박국은 BHQ, 114\*-126\*을 보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라 여길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BHQ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형의 유형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르텔레미가 밝혀낸 H<sub>ev</sub> 본문의 기본적 특징을 바탕으로 한다. 곧 이 두루마리의 헬라어 본문이 전반적으로 ‘카이게 개정본’의 본문 형태를 담고 있음에 동의한다. 하지만 H<sub>ev</sub>가 카이게 개정본 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본문도 담고 있음을 밝혀서, 이 당시 본문의 ‘다중성’와 ‘유동성’이 반영된 형태의 본문임을 밝히려 한다.

## 2) 본문 증거

본 연구에서는 주로 본문 증거들을 비교하고 분석할 터인데,<sup>25)</sup> 그 기준은 H<sub>ev</sub> 하박국 본문이다. 이 본문과 더불어 아래에서 언급하는 본문 증거들이 H<sub>ev</sub> 헬라어 본문의 히브리어 대본(Vorlage) 추정과 본문 판정에 사용될 것이다.

### (1) 8H<sub>ev</sub>XIIgr 하박국 본문

H<sub>ev</sub>에서 하박국 본문은 전체 구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남아 있다. 하박국서의 본문은 17-20단에 걸쳐서 모두 34절(1:5-11; 1:14-2:8; 2:13-20; 3:9-15)의 일부가 남아 있다. DJD에서는 해당 본문의 두루마리 단편에는 남아 있지 않더라도 추정 가능한 본문들은 복원해 놓았다. BQ에서는 단편에 남아 있는 본문은 대문자로, 복원 본문은 소문자로 표시하였다. 우리도 이 체계를 따르지만, 한 글자라도 남아 있는 본문들만 다루기로 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이형들은 모두 150개인데, 우리

---

25) 이 작업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우선 BQ, 127-139를 참조할 수 있다. 당연히 LXX-Ra와 LXX-G6, BHS와 BHQ의 비평각주는 물론, 본 연구에서는 이와 더불어 몇몇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는데, MT와 LXX, 그리고 MurXI와 H<sub>ev</sub>는 물론 1QpHab까지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어코던스”(Accordance)를 사용하였으며, MT와 LXX의 병행 본문 대조와 이형(variant) 분석에는 CATSS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바이블웍스”(Bible Works)의 대조 기능을 사용하였다.

는 이 이형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 이형들을 우리는 MT와 다른 자음 본문의 반영(V), 헬라이어 철자법 상의 특징(Orth), MT와 같은 자음의 다른 읽기, Heb의 구분되는 번역 특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sup>26)</sup>

## (2) 하박국 히브리어 본문 증거

우선 우리는 BHQ에서 제공하는 MT와 더불어 하박국서의 쿰란 히브리어 본문으로 다음 두 가지 본문 증거를 비교 본문으로 사용한다.

### ① 하박국 페세르(1QpHab)의 본문 인용

이 가족 두루마리는 1947년에 사해 북서쪽 와디 쿰란의 동굴에서 최초로 발견된 문헌 가운데 하나로 하박국서 1장과 2장의 본문을 한 절 한 절 인용하며 절마다 해석(תרגום 페세르)을 달아 놓은 쿰란 공동체의 신학과 세계관이 스며있는 독특한 형태의 주석이다.<sup>27)</sup> 문제는 하박국서 본문을 인용한 부분(lemmata)이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이 본문이 단순한 인용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정한 본문도 섞여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sup>28)</sup> 그럼에도 몇몇 본문 인용은 고대 본문 형태의 흔적을 담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26) [http://hoze.pe.kr/Hab\\_data/8HevXIIgr\\_DB.pdf](http://hoze.pe.kr/Hab_data/8HevXIIgr_DB.pdf)(이하 DB)로 올린 필자의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를 참조하라.

27) 1QpHab의 사진본으로는 J. C. Trever, *Scrolls from Qumran Cave 1: the Great Isaiah Scroll, the Order of the Community, the Peshier to Habakkuk from Photographs by John C. Trever* (edited by F.M. Cross, D.N. Freedman, J.A. Sanders) (Jerusalem: The Albright Institute of Archeological Research and the Shrine of the Book, 1972)를 참조하라. 편집본문으로는 E. Lohse, *Die Texte aus Qumra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4), 227-243와 우리말 번역본과 함께 볼 수 있는 본문으로는 F. 마르티네즈/E. 티그셀라이르, 「사해문서 1 (1Q1-4Q155)」(강성렬 옮김), (서울: 나남, 2008), 55-68[우리말 번역], 388-394[히브리어 원문]을 참조할 수 있다. 페세르에 관한 개관은 J. H. Charlesworth, *The Pesharim and Qumran History, Chaos or Consensus?* (Grand Rapids/Cambridge: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2)를 참조하라.

28) 의도적 수정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연구로는, Kim, Jong-Hoon, "Intentionale Varianten der Habakukzitate im Peshier Habakuk, Rezeptionsästhetisch untersucht", *Biblica* 88 (2007), 23-37를 참조하라. 이 논문에서 필자는 페세르 부분의 논증을 위해 미세한 본문 수정을 가한 용례들을 들어 본문 인용의 수용 미학적 성격을 규명하였다.

(가령, 합2:8 MT ישלך=MurXII שלך[ׁ]=LXX σκυλεύσουσίν σε; 1QpHab כשלוכה=H<sub>ev</sub> KAI ΣΚΥΛΕΥ[σουσιν σ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용례를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② 무라바앗 열두 소예언서 본문(MurXII)

1951년 10월에 몇몇 베두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록펠러 박물관(Rockefeller Museum)에 히브리어와 헬라이어 본문이 적힌 가죽 두루마리 단편 두 조각을 가져왔다. 이것을 시작으로 드보(R. de Vaux)와 하딩(G. L. Harding)을 중심으로 한 발굴단은 이 단편들이 보관되어 있던 와디 무라바앗(Wadi Murabbaat = Nahal Darga)의 동굴에서 주후 2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많은 유물들과 필사본들을 발견하거나, 이미 먼저 이 동굴에서부터 필사본들을 가져간 베두인들에게서 매입하였다.<sup>29)</sup> 이 가운데는 우리가 본문 비교에 사용하려 하는 열두 소예언서 히브리어 본문도 포함되어 있다.<sup>30)</sup> 무라바앗에서 발견된 성경 본문은 앞서 언급했듯이 MT와 매우 가까운데, 하박국서의 경우 75개의 비교 가능 이형 가운데 단 하나만 MT와 다른 전통을 보여준다(합 3:10 MT מַרְאֵ[제렘/큰 비]=H<sub>ev</sub> ENTINA[γ] MA; MurXII מרמו[구름이 비를 쏟아 비우다]; 비교. LXX σκορπίζω<sup>31)</sup>).

29) 더 자세한 내용은 와디 무라바앗 필사본의 정식 편집본을 참조하라. 발굴에 대한 이야기와 필사본 편집 본문은, P. Benoit et al.(eds.), *Les Grottes de Murabbaat* (DJD II; Oxford: Clarendon Press, 1961)(이하 DJD II); 유물과 필사본들의 사진은, P. Benoit et al.(eds.), *Les Grottes de Murabbaat* (DJD IIa; Oxford: Clarendon Press, 1961)을 보라.

30) DJD II, 181-205; 하박국서 본문은 199-200.

31) LXX의 번역에 대해 BHQ, 125\*에서는 MT와 같은 자음을 두고 분사(participle) 마(조렘)로 읽었다고 판단하였다(differ-vocal). 그러나 헬라이어 번역어인 "σκορπίζω"(스코르피즈/출다)는 말 2:3; 스 5:12 등에서 마(자라/출다)로 옮기는데, 이에 따라 LXX의 대본이 마(조레)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하박국 헬라이어 본문 증거

본 연구에서 LXX 헬라이어 본문은 괴팅엔 대비평편집본(LXX-Gö)을 사용한다.<sup>32)</sup>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형들 가운데 이전 소비평편집본인 랄프스판(LXX-Ra)<sup>33)</sup>과 본문 편집이 다른 경우는 하박국 2장 18절에서 아래와 같이 발견된다.

		MT	MurXII	IQpHab	LXX-Gö	H <sub>ev</sub>	
2	18	בְּסֵלָה	בְּסֵלָה	בְּסֵלָה	ἐγλυψεν αὐτό	ἸΝ ΑΥΤΟ	LXX-Gö < 410=MT; LXX-Ra -ψαυ < rel
2	18	בְּסֵלָה	בְּסֵלָה	בְּסֵלָה	ἐπλασεν αὐτό	Ο ΠΛΑΣΑΣ ΑΥΤΟ	LXX-Gö < B S A; LXX-Ra -σαυ < rel(W); 8HevXIIgr=Ptc

이 경우에도 우리는 LXX-Gö의 본문을 원-칠십인경(Ur-LXX; Old Greek)으로 여긴다. 필요한 경우 개별 필사본이나 헥사플라(Hexapla)의 이형들도 본문 비교에 사용한다. 이밖에 몇몇 중세 필사본의 하박국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른바 “바르베리니 본문”(Barberini Text)는 BHS와 BHQ의 비평 각주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본문 비평적 가치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본문비교에서 제외하였다.<sup>34)</sup>

32) J. Ziegler(ed.),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öttingensis editum, XIII Duodecim Prophetar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31984).

33) A. Rahls/R. Hanhart(eds.), *Septuaginta, Editio alter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34) 이 본문은 12세기 소문자 필사본인 MS Barberinus Gr. 549 (Ra: 147)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하여 “바르베리니 본문”이라고 일컬어졌다. 같은 형태의 본문이 8세기의 대문자 필사본인 Codex Venetus와 계속해서 9-11세기의 소문자 필사본 세 개(62-86-407)에서 더 발견되었다. 페르난데즈 마르코스(N. Fernández Marcos)는 이 본문이 심마쿠스(Symmachus) 본문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에 관해, N. Fernández Marcos, “Der Barberini-Text von Hab 3 – eine neue Untersuchung”, in H.-J. Fabry/D. Bühler(eds.), *Im Brennpunkt: Die Septuaginta, Bd. 3* (Stuttgart: Kohlhammer, 2007), 151-180와 거기에 소개된 참고문헌들을 보라.

### 3. 8.HevXlgr 하박국 본문의 자음 본문 이형(variants) 분석

이제 본격적으로 H<sub>Ev</sub> 하박국 이형들을 분석한다. 모든 이형들을 다 설명하는 것이 옳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제각각 해당 분류 항목을 잘 설명해 주는 이형을 보기로 들어 분석한다.<sup>35)</sup> 그리고 헬라이어 철자법 상의 차이는 번역 대본과 상관이 없는 문제이므로 우리의 목적에 직접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DB: Orth[시트] 참조). 또한 같은 본문에 대한 번역 기법(translation technique)의 차이 문제도 본 연구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DB: Tr.T[시트] 참조). 다만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만 언급하자면, 번역 기법과 관련한 66개의 이형들 가운데 28개의 이형(참조. L항-MT)이 H<sub>Ev</sub>가 MT와 동일한 히브리어 대본을 직역하고 LXX는 다소의 역하여, H<sub>Ev</sub>의 카이게 개정본 근접성과 MT 근접성을 말해준다. 상대적으로 H<sub>Ev</sub>와 LXX가 더불어 의역한 경우는 5개(참조. L항-LXX)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절반 정도인 32개(참조. L항-al.)의 이형에서 LXX와 H<sub>Ev</sub>가 어휘 선택의 차이 등으로 경쟁본의 성경을 드러내어 히브리어 본문 뿐 아니라, 헬라이어 번역의 유동성과 다중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히브리어 자음 본문과 관련한 이형들로 분석 대상을 한정한다.

#### 1) 히브리어 자음 본문의 차이

##### (1) H<sub>Ev</sub>=MT≠LXX

하박국 H<sub>Ev</sub>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히브리어 번역 대본(Vorlage)의 차이에서 비롯한 이형들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150개의 이형 가운데 64개의 이형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은 34개가 LXX와 달리 MT와 일치한다. 이 이형들에서는 LXX의 추정 히브리어 대본과 비

---

35) 모든 이형들에 대한 간략한 분석은 필자가 온라인에 게시해 놓은 데이터베이스(DB)를 참조하라(위의 각주 26 참조).

교했을 때, 자음 본문이 길거나 짧다.<sup>36)</sup>

보기를 들자면, 하박국 2장6절에서 LXX는 “καὶ βαρύνων τὸν κλοιὸν αὐτοῦ στιβαρῶς”(그리고 제 목줄을 아주 무겁게 한 자)이다. 여기서 밑줄 친 부분에서 쓰인 헬라이어 “κλοιός”는 LXX에서 주로 “על” (올/명예)의 번역어로 쓰인다.<sup>37)</sup> 그러므로 LXX의 번역 대본은 “על” (올로)가 된다. 이것을 MT “עֲלֵי”와 그에 상응하는 H<sub>ev</sub> 본문 “ΕΦ ΕΑΤΟΝ”(=εφ’ ἑαυτὸν)과 비교해 보면 자음 ‘요드’가 빠져 있는 상태다. 흥미롭게도 LXX 본문의 전통은 1QpHab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로써 LXX의 본문 형태가 적어도 주전 1세기에는 MT로 이어진 본문 형태와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반대 경우의 보기로 하박국 2장14절에 있는 이형을 들 수 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MT는 “כָּמוֹם יָכְסוּ עַל-יָם”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이다. 이 본문은 H<sub>ev</sub>가 지지한다(ΩΣ [ῥδ- κατακαλύψει ἐπὶ] ΘΑΛΑΣΣ[ης; 참조. על הים 1QpHab). 그런데 LXX는 여기서 “ὡς ὕδωρ κατακαλύψει αὐτούς”(물처럼 그것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로 옮긴다. 밑줄 친 부분의 LXX 번역은 BHS에서 제안하듯 “עליהם”을 대본으로 읽

36) 긴 경우(H<sub>ev</sub>=MT≠LXX[히브리어 추정대본] 순서)- 1:8 και οι ιπ]ΠΙΕΙΣ ΑΥΤΟΥ=ויפרשׁוּ # και ὁρμήσουσιν(ויפרשׁוּ); 1:9 ΚΑΥΣΩΝ=המהימך #έξ ἐναντίας(המהימך); 1:15' ΕΣΥΡΕΝ [αυτον=הפסויי #και εἴλκυσεν(הפסויי); 1:15<sup>2</sup> αμ]ΦΙΒΛΗΣΤΡΩ ΑΥΤΟΥ=מרחב # ἐν ἀμφιβλήστρω(מרחב); 1:17 ΕΙ ΔΙΑ ΤΟΥ[το=כך על #דיὰ τοῦτο(כך על); 2:6 ΕΦ ΕΑΤΟΝ=עלי #τὸν κλοιὸν αὐτοῦ(על 1QpHab); 2:7 ΕΙΣ ΔΙΑΠΛΑΓΑΣ=תוסמל #είς διαρπαγήν(תוסמל); 3:13 εἰς[KENΩΣΑ[ς=תויר #εξήγειρας(תויר). 짧은 경우- 1:5 (-)(-)#και ἀφανίσθητε(המשׁי BHS); 1:15<sup>3</sup> εν τη] ΣΑΓΗΝΗ ΑΥΤΟΥ=תחתבמכתב #ἐν ταῖς σαγήναις αὐτοῦ (תחתבמכתב); 1:15<sup>4</sup> (-)(-)#ή καρδία αὐτοῦ(הלב); 1:16' ΕΛΙΠΑΝΘΗ=מש #ἐλίπανεν(וימשׁי); 1:16<sup>2</sup> και] ΤΟ Β[ρ]ΩΜΑ ΑΥΤΟΥ=למאכ #και τὰ βρώματα αὐτοῦ (ומאכלי); 2:6 ΚΑ[ερ] ΕΙ=מא #και ἔροῦσιν(מא 1QpHab); 2:14 επι] ΘΑΛΑΣΣΕ[ης=על #αὐτούς(עליהם BHS); 2:19' ΛΕΓΩΝ=מא #ὁ λέγων(מא) 1QpHab); 2:19<sup>2</sup> ΤΩ ΛΙΘΩ=באב #και τῷ λίθω (באב); 2:19<sup>3</sup> ΑΥΤΟΣ=הוי #και αὐτό ἐστιν(הוי); 2:20 ΣΙΩΠΗΣΟΝ=ה #εὐλαβεῖσθω(הסב); 3:15 ΕΝΕΤΕΙ[ν #ε=תב #και ἐπεβίβασας(תב 1QpHab)].

37) 왕상 12:4(×2), 9, 10, 11(×2), 14(×2), 겔 34:27 등. 참조. E. Hatch/H. A. Redpath (eds.),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772a (0104, HR).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어 본문은 1QpHab와는 음위전환 (metathesis)의 관계에 있으며, MT의 전통에 비해 자음 ‘헤’가 더 있다. 여 하튼 이 두 본문은 1QpHab의 인용본문과 더불어 히브리어 본문의 형태로 공존하였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LXX의 추정 히브리어 대본과 비슷한 자음의 다른 본문이 거나, 차이의 폭이 좀 더 큰 경우도 있다.<sup>39)</sup> 가령, 허박국 2장 19전반절을 보자.

MT	הוֹי אָמַר לְעֵץ הַקִּיצָה עוֹרֵי לֶאֱבֹן רוֹמָם
MurXII	[הוֹי אָמַר] לְעֵץ הַקִּיצָה עוֹרֵי לֶאֱבֹן רוֹמָם
H <sub>Ev</sub>	[Οὐα] ΛΕΓΩΝ ΤΩ ΕΥΛΩ ΕΓΝΗΨΟΝ ΕΞΕ[γέρθητι] ΤΩ ΛΙΘΩ ΣΙΩΤΩΝ
LXX	οὐὰὶ ὁ λέγων τῶ ξύλῳ ἔκνηψον ἐξεγέρθητι καὶ τῶ λίθῳ ὑψώθητι
1QpHab	<sup>39)</sup> הוֹי הָאֹמֵר לְעֵץ הַקִּיצָה [עוֹרֵי לֶאֱבֹן] רוֹמָם

여기서 MT와 MurXII는 “לֶאֱבֹן רוֹמָם”(조용한 돌에게)으로 쓴다. 이것은 H<sub>Ev</sub>의 번역과 일치한다(ΤΩ ΛΙΘΩ ΣΙΩΤΩΝ). 그러나 여기서 LXX

38) H<sub>Ev</sub>=MT≠LXX(히브리어 추정대본) 순서- 2:3 δ]ΑΨΕΥΣΕΤΑΙ=יִכְזֹב≠εἰς κενόν(לִכְזֹב); 2:4' ΨΥΧΗ ΑΥΤΟΥ=נַפְשִׁי≠ψυχή μου(נַפְשִׁי); 2:4<sup>2</sup> EN ΠΙΣΤΕΙ ΑΥΤΟΥ=בְּאִמּוֹנָתִי≠ἐκ πίστεώς μου(בְּאִמּוֹנָתִי); 2:7 ΟΥΧΙ=לֹא≠וְטִי(כִּי); 2:7 ΔΑΚΝΟΝΤΕΣ ΣΕ=נֹכְחִי≠δᾶκνοντες αὐτόν(כִּי); 2:15 ἐπι την ασχημοσ]ΥΝΗΝ ΑΥ[τῶ]=מֵעַל-מְעוֹרֵיהֶם≠ἐπὶ τὰ σπήλαια αὐτῶν(מְעוֹרֹתָם); 2:19 ΣΙΩΠΩΝ=רוֹמָם≠ὑψώθητι(רוֹמָם 1QpHab); 3:10' ὠδυνῆσ]ΑΝ=יַחֲיִי≠καὶ ὠδυνήσουσιν(יַחֲיִי); 3:10<sup>2</sup> ΟΡΗ=הַרִים≠λαοί(הַרִים); 3:10<sup>3</sup> ENTINA[γ]ΜΑ=רוֹם≠σκορπίζων(רוֹד); 3:13' κε]ΦΑ[λη]Ν ΕΞ ΟΙΚΟΥ [α]σ]ΕΒ[ου]ς=רֶשֶׁת מְבִית רֹאשׁ מַחְצַת≠ἕβας εἰς κεφαλὰς ἀνόντων θάνατον(מֹרֶת רֶשֶׁתִּים מֹרֶת); 3:13<sup>2</sup> ΘΕΜΕΛΙΟΣ=יְסוֹד≠δεσμούς(מַסָּד); 3:14' EN PABΔOIS ΑΥΤΟΥ=בְּמַשְׁתֵּי≠ἐν ἑκστάσει(מַתְּהוֹ); 3:14<sup>2</sup> ΤΟ ΓΑΥΡΙΑΜΑ ΑΥΤΩΝ=עֲלִיצָתָם≠χαλινοὺς αὐτῶν(עֲלִיצָתָם).

39) 참조, BHQ, 98; 비교, Lohse, 윗글, 242 (דומה [דומ/침묵, 정적])와 BQ, 135 (דומם=MT)에서 첫 자음을 ‘달렛’으로 본 것은 분명 잘못이다. 같은 단(1QpHab 12) 13행에 나오는 ‘הרבב’ **הרבר**의 달렛과 비교해 보면, 우리 본문(1QpHab 12)의 첫 자음은 오른쪽 모서리가 도드라져 올라가지 않아서 분명히 구분이 되며, 가로줄 가운데 부분이 손상되어 있지만 분명히 ‘레쉬’임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로제의 재구 성과는 달리 마지막 자음은 아랫 부분이 손상된 꼬리형 ‘멤’으로 보는 것이 옳다.

는 “καὶ τῷ λίθῳ ὑψώθητι”(그리고 돌에게 [말하기를], ‘높임을 받으소서’)로 옮긴다. 이 본문은 우선 BHQ에서 설명하듯, 구문을 문맥에 맞게 조정한 전통(assim-ctext)을 반영한다. 곧 “ἐξεγέρθητι”(일어나소서)를 앞선 명령형 “ἐκίνησον”(깨어나소서)과 붙여서 이중 명령으로 이해하고, 마지막 낱말을 동사로 읽었다. 하지만 이런 구문 이해는 히브리어 본문 전통의 차이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1QpHab에서 드문 형태지만 동사 ‘רום’ (롬/높아지다)의 수동형의 일종인 폴랄(Polal)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으로 읽을 수 있는 형태가 확인된다(רום; 느 9:5; 시 66:17 등 참조).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달렛’으로 시작하는 본문과 ‘레쉬’로 시작하는 본문의 두 전통을 다 찾아볼 수 있다.

(2) H<sub>ev</sub> ≠ MT = LXX

앞선 경우와는 반대로 MT와 LXX가 일치하는 반면에 H<sub>ev</sub>가 다른 본문 전통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sup>40)</sup> 하박국 2장 8절의 경우, MT와 LXX(=Cod. W)는 물론, 1QpHab에도 인칭대명사 주어가 존재한다.

MT(=1QpHab): כִּי אֶתָּה שְׁלוֹתָ גּוֹיִם רַבִּים

LXX: διότι σὺ ἐσκύλευσας ἔθνη πολλὰ

하지만 H<sub>ev</sub>에는 이 주어가 빠져 있어서 짧은 자음 본문을 보여준다 (ΟΤΙ (-) ΕΣ[κ]ΥΛΕΥΣΑΣ ΕΘΝΗ ΠΟΛΛΑ). H<sub>ev</sub>와 같은 본문 전통이 3~4세기의 대문자 필사본(Codd. B, S; 참조. Cod. V)에서도 찾아볼 수 있

40) H<sub>ev</sub>(히브리어 추정대본)≠MT=LXX 순서- 1:16' ΑΡΤΟΣ [αυτου(ηθη)]≠ηρημεριδα αυτου; 1:16' ΣΤΕΡΕΟΝ(רַבִּים)≠הרבה=έκλεκτά; 1:17 ΜΑΧΑΙΡΑΝ ΑΥΤΟΥ(רַבִּים)≠הרבה=τὸ ἀμφίβληστρον αὐτου; 2:5 ΟΙ ΑΝΗΡ≠הרבה=άνηρ; 2:6 ΛΗΨΕ[ται(ασι)]≠ασι=λήμψονται; 2:6' (-)≠הרבה=עד=עדως τίνος; 2:7 ΟΙ ΣΑΛΕΥΟΝΤΕΣ ΣΕ(הרבה)≠הרבה=σκυλεύουσιν σε; 2:8' (-)≠הרבה=σὺ; 2:8' ΚΑΙ ΣΚΥΛΕΥ[σουσιν σε(הרבה)]≠הרבה=σκυλεύουσιν σε

다. 아마도  $\text{H}_{\text{ev}}$ 의 짧은 형태도 MT의 긴 형태와 더불어 공존하던 시절이 있었던 듯하다. 같은 구절에서 이어지는 동사가 MT와 LXX에서는 접속사 없이 쓰인다(ἡλιώσι=σκυλεύουσιν σε). 반면에  $\text{H}_{\text{ev}}$ 와 1QpHab에서는 접속사와 더불어 쓰인다(KAI ΣΚΥΛΕΥ[σουσιν σε=וישלוכה]). 흥미로운 점은 1QpHab가 2장8절 한 구절에서 매우 유동적인 본문을 내보인다는 것이다.

(3)  $\text{H}_{\text{ev}}=\text{LXX}\neq\text{MT}$

$\text{H}_{\text{ev}}$ 가 MT와는 다르지만, LXX와 같은 본문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sup>41)</sup> 간단히 하박국 2장 5절의 보기를 들어 보자. 이 구절에서 MT는 “עָבַד וְלֹא יִשְׁבַּע” (그래도 그는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로 쓰는 데 비해,  $\text{H}_{\text{ev}}$ 와 LXX는 접속사가 없는 본문 전통 “(-) οὐκ ἐμπιπλάμενος”를 보여준다. 이 전통은 1QpHab에서 뒷받침된다(עָבַד וְלֹא יִשְׁבַּע). 그러므로 접속사가 있는 본문과 없는 본문의 우열을 가리기란 쉽지 않으며, 적어도 주전1세기-후주1세기에는 두 전통이 공존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text{H}_{\text{ev}}$  본문 형태의 유동성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겠다.

(4)  $\text{H}_{\text{ev}}\neq\text{MT}\neq\text{LXX}$

$\text{H}_{\text{ev}}$ 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형으로서 본문 형태의 유동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보기로는 모든 본문 증거들이 제각각 다른 자음 본문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이다.<sup>42)</sup> 하박국 2장4절의 경우에 LXX은

41)  $\text{H}_{\text{ev}}$ ( $\neq\text{LXX}$ ; 히브리어 추정대본) $\neq\text{MT}$  순서- 1:15 KAI ΕΣΥΡΕΝ [αὐτὸν(וַיִּנְרַה) 1QpHab] $\neq$ וַיִּנְרַה=καὶ εἰλκυσεν αὐτόν; 2:5 OYK ENΠΙΠΛΑΜ[ενος (עָבַד וְלֹא יִשְׁבַּע) 1QpHab] $\neq$ עָבַד וְלֹא יִשְׁבַּע; 2:6' KAI ΠΡΟΒΛ[ημ]Α (וַחֲדָה) וּמְלִיצָה $\neq$ וַחֲדָה); 2:6<sup>c</sup> ΔΙΗΓΕΣΙΣ ΑΥΤΟΥ(εἰς διήγησιν αὐτοῦ; 추상명사 형) וְחַדָּה לֹא-וַחֲדָה; 2:17 πτοση[ε]Ι ΣΕ(חִיתָן בְּחֹ) וְחִיתָן; 2:18 και φά[NΑΝΤΑΣΙΑΝ(וּמְרָאָה)] $\neq$ חַמְרָא; 3:9 ΕΞΕΓ[ε]Ρ[ε]ΙΣ(ἐξέντενεῖς; חַמְרָא) $\neq$ חַמְרָא

42)  $\text{H}_{\text{ev}}$ (히브리어 추정대본) $\neq\text{MT}\neq\text{LXX}$  순서(히브리어 추정대본)- 2:4 ΣΚΟΤΙΑ(אֶפְלָה) $\neq$ עַפְלָה $\neq$

“ὑποστείλῃται”(취포스테일레타이/덮여있다)<sup>43)</sup>로 옮겼는데, 이는 MT의 “הָפַחַ” (우플라/교만하다; =1QpHab)를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LXX의 본문은 아마도 MT와는 음위전환의 관계에 있었을 “הָפַחַ” (올르파/씩 워지다, 덮이다)를 그 대본으로 했을 것이다.<sup>44)</sup> MT와 LXX 사이의 이형은 분명히 필사된 히브리어 전통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그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주후 1세기를 넘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LXX의 번역이 히브리서 10장38절에서 그대로 인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H<sub>ev</sub>의 이형은 좀 다른 성격을 내보인다. H<sub>ev</sub>는 이 부분에서 “ΣΚΟΤΙΑ”(스코티아/어둠, 암흑)로 번역했는데, 이는 MT나 LXX의 전통과는 전혀 다르다. 이 번역은 아마도 MT와 비슷한 발음의<sup>45)</sup> “הָפַחַ” (아펠라/암흑, 흑암)<sup>46)</sup>를 대본으로 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겠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이형은 필사 이전 구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는 세 본문 전통이 제 각각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전제하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다.

## 2) 같은 히브리어 자음 본문의 다른 읽기

### (1) H<sub>ev</sub>=MT ≠ LXX

---

ὑποστείλῃται(הפחח); 2:16 KAI EMETOS [ατιμιας(יונין קלויא וקיא)≠יוניןקלויא≠καὶ συνήχθη ἀτιμία(יונין קלויא וקיא); 2:18 Ο [π]ΛΑΣΑΣ ΕΠΙ ΤΟ ΠΛΑΣΜΑ ΑΥΤΟΥ ΕΠΙ ΑΥΤΟ(עליו יצר על יצר)≠עליו יצרו יצר ≠ό πλάσας ἐπὶ τὸ πλάσμα αὐτοῦ(יצרו על יצר); 2:19 ΦΩ[τει(האיר)≠יורה ≠φαντασία(הרא).

43) “ὑποστέλλω”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H. G. Liddell et al. (eds.), *A Greek-English Lexicon with Supplement* (Oxford: Clarendon Press, <sup>1996</sup>, 1895 3.-b. 용례를 보라.

44) 참조, M.J.J. Menken/S. Moyses(eds.), *The Minor Prophets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T&T Clark, 2009), 118.

45) 칠십인경이 번역되던 당시에는 아마도 ‘알렙’과 ‘아인’의 발음에 대한 구분이 혼용되어 있었던 듯 하다. 두 자음 모두를 모음 ‘알파’로 음역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가 하면(가령, Ἀμεσοεί 2에스2[느 1]: 12 אמציי; 왕하 17:25 אמצא, ‘알렙’과 구분되게 ‘아인’을 ‘감마’로 음역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Γόμορρα 6:27). 어쨌거나 구술전승에서는 혼동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은 틀림없다.

46) 참조, 신 28:29; 사 8:22; 58:10. 비교, 욥 3:6; 10:21(22); 23:17; 시 90(91):6; 사 29:18에서는 σκοτία가 הַפַּחַ를 번역하는 데 쓰였다.

모음 부호가 없었던 때의 히브리어 본문은 같은 자음을 두고서 다르게 읽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H<sub>ev</sub>의 본문에서도 16개의 이형에서 같은 자음 본문의 다른 읽기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H<sub>ev</sub>가 MT와 같은 읽기를 보이는 데 비해, 칠십인경이 다르게 읽은 경우가 있다.<sup>47)</sup> 하박국 1장5절의 경우를 보자. 여기서 MT는 “מְפָרֵי” (여수파르/전해지다)로 수동 강의형인 푸알(pual)로 읽는다. 이 읽기는 접속법 수동태 단순과거형을 쓰는 H<sub>ev</sub>의 번역 “ἐκδιηγ[ΗΘΗ]”가 지지한다. 반면에 LXX는 능동의 의미가 있는 접속법 중간태 현재형 “ἐκδιηγῆται”을 쓴다. 이 번역은 분명히 강의능동형인 피엘(piel) “פָּרַר” (여사페르/전하다, 이야기하다)을 전제한다. 그리고 LXX는 대본의 능동형을 헬라이어에서 명확히 하려고 히브리어에 없는 의미상 주어로 부정(否定)대명사 “τις”를 삽입하였다.

또한 흥미로운 보기를 들자면, 하박국 1장 8절에서 MT는 “מְזַאבֵי עֲרַב” (미즈아베 에레브/저녁 이리보다)인데, 이는 H<sub>ev</sub>의 번역이 지지한다(ὑπερ τοὺς λυκοὺς ἐσπε[ΡΑΣ]). 그런데 여기서 LXX는 “ὑπὲρ τοὺς λύκοὺς τῆς Ἀραβίας” (아라비아의 이리보다)로 밑줄 친 부분의 번역이 다르다. LXX의 번역은 히브리어 자음을 “עֲרַב” (에레브)가 아니라 ‘아라비아’를 뜻하는 “אַרַב” (아라브)로 읽은 결과다.<sup>48)</sup>

(2) H<sub>ev</sub> ≠ MT = LXX

하박국 2장4절에서 MT는 “לֹא-יִשְׂרָאֵל נִפְשׁוֹ בּוֹ” (로-야쉬라 나프쇼

47) MT=H<sub>ev</sub>≠LXX 순서- 1:5 מְפָרֵי=ἐκδιηγ[ΗΘΗ]≠ἐκδιηγῆται(פָּרַר); 1:8 מְזַאבֵי עֲרַב=ὑπερ τοὺς λυκοὺς τῆς ἐσπε[ΡΑΣ]≠ὑπὲρ τοὺς λύκοὺς τῆς Ἀραβίας(עֲרַב מְזַאבֵי); 1:9' עַל זָבִיחַ=ANTA ≠συντέλεια(חָבַד); 1:9' מִסְּהָלָה=EIS ΑΔΙΚΙΑΝ≠εις ἀσεβείας(סִמְחָלָה DJD 151); 2:16 עַתָּה עָבַד=ENEΠΗΣ[θης ≠πλησμονήν(תָּבַדָּע BHS); 2:18 יִצְרָיִם=O ΠΛΑΣΑΣ ΑΥΤΟ≠ἐπλασειν αὐτό (Codd, BSA; יִצְרָיִם BHQ).

48) 이런 경우를 겔 27:21; 습 3:3; 대하 9:14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조, Kim, Jong-Hoon, "Text und Übersetzung des griechischen Zephanjabuches", in: Kreuzer, S. et al(eds.), *Die Septuaginta – Entstehung, Sprache, Geschichte* (Tübingen: Mohr Siebeck, 2012), 159.

보/그의 영혼은 그 속에서 올곧지 않다)로 쓴다. 여기서 MT는 밑줄 친 부분을 부정어와 함께 쓰인 동사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H<sub>ev</sub>는 “OYK EYΘEIA”로 옮겨서 같은 자음 본문을 동사가 아닌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 형용사로 이해하여 “לֹא-יִשְׁרָאֵל”(로-여사라)로 읽었다. 한편, LXX는 “οὐκ εὐδοκεῖ”(그[내 영혼 sic.]는 당연히 여기다)<sup>49)</sup>로 옮기는데, 이 번역은 마소라 본문과 같은 자음 본문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 칠십인경에서 이 번역은 일반적으로 “רָצָה”(라차)의 대응어로 쓰인다.<sup>50)</sup> 그래서 BHS에서는 칠십인경의 대본을 “לֹא-רָצָה”로 재구성하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자음 본문의 연관성이 너무 부족하다. 오히려 BHQ에서 제안하듯 MT와 같은 읽기 전통에 대한 의역(lib)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곧 “영혼이 올곧다”는 표현을 직역하기보다는 “당연히 여기다”로 이해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박국 2장 6절 마지막 낱말이 MT(=MurXII)는 “עֲבֹטִיט”(아브티트/저당, 담보)이다. BHQ의 견해대로, LXX는 위의 3.-1)-(1)에서 보았듯이 앞선 낱말들의 차이에서 비롯하여 MT와 같은 읽기 전통의 낱말을 “στειβαρῶς”(무 겁계=아주)<sup>51)</sup>로 의역하였다. 반면에 H<sub>ev</sub>는 여기서 “ΠΑΧΟΣ ΠΗΛΟΥ”(진창[으로] 가득함)로 두 낱말을 쓴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עֲבֹטִיט”를 옮긴 것이다. 따라서 H<sub>ev</sub>는 MT와 같은 자음을 달리 띄어 쓰고 읽은 데서 비롯한 이형이다.

### (3) H<sub>ev</sub>=LXX≠MT

H<sub>ev</sub>와 LXX가 더불어 MT와 같은 자음의 다른 읽기 전통을 내보이기

49) “εὐδοκέω”의 일차적인 뜻은 “좋게 여기다”이다. “확신하다”로 번역한 데 대해서는 LSJ, 710를 참조하라.

50) 참조. HR, 569a-b.

51) 참조. T. Muraoka,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euven: Peeters, 2009), 637.

도 한다. 하박국서에서 이런 경우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먼저 MT가 동사와 함께 쓰인 접속사 ‘바브’를 연속법(Waw consecutivum)으로 읽는 반면, H<sub>ev</sub>와 LXX는 단순 ‘바브’(Waw Copulativum)으로 읽은 경우이다.<sup>52)</sup> 이 경우 문맥 상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신탁이므로 MT는 이른바 예언자적 완료(perfectum propheticum; 참조, GK § 106n)라고 이해해야 풀린다. 자음 본문만 있었던 시절에는 두 가지 모두 가능했을 것이다. 둘째로는 하박국 2장5절을 보기로 들 수 있는데, MT는 “כִּשְׂאוֹל” (키세울/스울처럼)로 전치사와 결합된 명사에 정관사 없이 읽었다. 하지만 H<sub>ev</sub>와 LXX(καθὼς ὁ ἄδης)는 아마도 정관사를 넣어서 “כִּשְׂאוֹל” (카세울)로 읽었던 듯하다. 셋째 경우에는 동사의 변화형을 다르게 읽은 경우이다. 하박국 3장9절에서 MT는 “תִּבְקַעְתְּ אֶרֶץ” (트바카 아레츠/당신이 땅을 쪼개셨습니다)로 강의능동형인 피엘(piel)로 읽었다. 이 경우 동사의 주어는 문장 전체의 주어인 ‘야훼’가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땅’은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반면에 미래 수동형 동사를 쓰는 H<sub>ev</sub>와 LXX(ῥαγήσεται γῆ)는 같은 자음 본문을 수동형인 ‘니팔’(niphal) “תִּבְקַעְתְּ אֶרֶץ” (팁바카 아레츠)로 읽었다. 이렇게 읽으면,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형 동사의 주어는 뒤이어 나오는 ‘땅’이 되어 “땅이 쪼개졌습니다”는 뜻이 된다. 전반절에서 야훼께서 화살을 쏘셨다는 표현은 두 형태 모두를 가능하게 한다.

#### (4) H<sub>ev</sub> ≠ MT ≠ LXX

이 경우는 하박국 3장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MT(=MurXII)는 “וַיִּסְעֲרוּ לְהַפְּזֹנֵנִי” (그들[악인들]이 나를 바스르뜨리려고 돌진해 옵니다)로 쓴다.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의 읽기는 ‘전치사+히필(hiphil) 부정사+1인

52) MT ≠ H<sub>ev</sub> = LXX 순서- 1:10' וַיִּסְעֲרוּ לְהַפְּזֹנֵנִי ≠ και β]ΑΛΕΙ=καὶ βαλεῖ/; 1:10<sup>2</sup> הִבְּרִיחַ לִּי ≠ KAI ΣΥΝΛΗΜΨΕΤ[αι αυτο≈καὶ κρατήσῃ αὐτοῦ; 1:11 וַיִּבְעֲרוּ ≠ KAI ΠΑΡ[ελευσεται≈καὶ διελεύσεται; 25 וַיִּבְרֹךְ ≠ KAI ΑΘΡΟΙ[σει≈καὶ εισδέξεται

칭단수 대명접미어'이다. 흥미롭게도 LXX는 여기서 “σεισθήσονται ἐν αὐτῇ διανοίξουσιν”(그들이 그 안에서 요동칩니다. 그들이 [입을] 벌립니다)으로 옮기는데, 이 번역은 히브리어 대본의 차이뿐 아니라, 구문도 달리 이해한 결과이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MT에서 한 낱말로 읽은 “לְהַפְּיִצְנֵי” 부분을 두 낱말로 나누어 번역한 “ἐν αὐτῇ διανοίξουσιν”이다. 이는 LXX가 히브리어를 달리 띄우고, 다른 자음으로 읽은 결과이다. 곧 “פִּצְנֵי לְ”로 읽었다. 그러다 보니 구문도 달라졌다. MT는 이 낱말에 ‘아트나’가 있어서 전반절이 끝난다. 하지만 LXX는 “ἐν αὐτῇ”에서 문장이 끝난다. 여기서 여성 단수 대명사는 앞선 문장에서 MT/Hev와 달리 읽은 “ἐν ἐκστάσει”(בְּתַמְהוּהָ; 격분하여)과 연관된다.<sup>53)</sup> 그리고 이어지는 동사 “διανοίξουσιν”은 MT 후반절의 첫 낱말 “χαλινοὺς αὐτῶν”(אֲלֻצוֹתָ?; 그들의 고삐를)과 이어져 “그들은 고삐를 (채우기 위해) 입을 벌립니다”는 뜻이 된다.<sup>54)</sup> 이에 비해 Hev는 문제가 되는 구절을 “TOY ΣΚΟ[ρπισ]AI ΗΜΑΣ”(우리를 흠어버리려고)로 옮기는데, 이 번역은 MT와 비슷하지만 마지막 자음이 달라진 “לְהַפְּיִצְנֵי”를 반영한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전 1세기 칠십인경 헬라어 본문의 한 형태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하는 Hev의 히브리어 대본은 분명히 LXX의 그것보다 MT와 그것의 전조 본문이라 할 수 있는 MurXII의 전통에 더 가깝다. 하지만 다양한 이형들에서 Hev의 MT 근접성 뿐 아니라, 다른 형

53) 위의 각주 38를 참조하라. 히브리어 대본의 재구성은 속 12:4를 보라; 참조, 신 28:28; 행 11:5; 22:17. 그리고 헬라어 번역에 대해서는 Muraoka, 윗글, 217을 보라.

54) 참조, 칠십인경 독일어 번역 “Sie werden ihre (Mäuler für die) Zaumzeuge aufreißen”: W. Kraus/M. Karrer(eds.), *Septuaginta Deutsch, Das griechische Alte Testament in deutscher Übersetz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1207.

태의 본문 전통, 곧 1QpHab나 LXX 사이에서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H<sub>ev</sub>는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여러 본문 형태가 공존하는 유동적 상태를 반영하는 본문을 번역 대본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곧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헬라/초기 유대주의 시대의 히브리어 본문 전통이 단일하지도, 고정적이지도 않았음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은 헬라/초기 유대주의 시대 본문의 다중성과 유동성이었다. 히브리어 자음 본문에 대한 본문 비평적 판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H<sub>ev</sub> 본문의 보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마소라 본문(Proto-MT)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주후 2세기 이전에는 다양한 본문들이 서로 유동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주후 2세기까지 구약성경 본문의 역사에서 MT에 반영된 본문의 전통은 유동적으로 공존하는 여러 형태의 본문들 가운데 하나였다. 구약성경의 첫 본문을 찾아가려는 이라면 이 사실을 분명히 주지하고, 히브리어든 번역본이든 MT 우월성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본문 증거를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5. 참고 문헌

- 쿠틀러 스탬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II-2; 서울: 바오로딸, 2008).
- 김정훈, “칠십인경 사무엘-열왕기서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 『Canon & Culture』 3권 1호 (2009), 181-210.
-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1; 서울: 바오로딸, 2009).
- 김정훈, “칠십인역 헬라어 구약성경의 기원과 그 영향: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를 중심으로”, 『부산장신논총』 11 (2011), 24-47.
- 마르티네즈, F./티그셀라아르, E., 「사해문서 1 (1Q1-4Q155)」 (강성렬 옮김), (서울: 나남, 2008).

- Abegg Jr., M. et al.(eds.), *The Dead Sea Scrolls Bible. The oldest known Bible for the first time into English* (New York: HarperCollins, 1999).
- Barthélemy, D., “Redécouverte d’un chaînon manquant de l’histoire de la Septante”, *RB* 60 (1953), 18–29.
- Barthélemy, D., *Les Devanciers d’Aquila* (S.VT 10; Leiden: Brill, 1963).
- Benoit, P. et al.(eds.), *Les Grottes de Murabbaat* (DJD II; Oxford: Clarendon Press, 1961).
- Charlesworth, J. H., *The Pesharim and Qumran History. Chaos or Consensus?* (Grand Rapids/Cambridge: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2)
- Elliger, K.(ed.), *Liber XII Prophetarum* (BHS 10;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0/1977), 991–1086.
- Ego B. et al.(eds.), *Biblia Qumranica*. Vol. 3B Minor Prophetes (Leiden/Boston: Brill, 2005).
- Fernández Marcos, N., “Der Barberini–Text von Hab 3 – eine neue Untersuchung”, in H.–J. Fabry/D. Böhler(eds.), *Im Brennpunkt: Die Septuaginta* (Bd. 3) (Stuttgart: Kohlhammer, 2007), 151–180
- Gelston, A.(ed.), *The Twelve Minor Prophets* (BHQ 13;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0).
- Hatch, E./H. A. Redpath(eds.),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Books, <sup>2</sup>1998).
- Karrer, M/W. Kraus(eds.), *Septuaginta Deutsch. Erläuterung und Kommentare. Bd. II Psalmen bis Danie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1).
- Kim, Jong–Hoon, “Intentionale Varianten der Habakukzitate im Peshet Habakuk. Rezeptionsästhetisch untersucht”, *Biblica* 88 (2007), 23–37.
- Kim, Jong–Hoon,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 Kim, Jong-Hoon, “The Tradition of Ketib/Qere and its Relation to the Septuagint Text of II Samuel”, *ZAW* 123 (2011), 27–46.
- Kim, Jong-Hoon, “Text und Übersetzung des griechischen Zephanjabuches”, in Kreuzer, S. et al (eds.), *Die Septuaginta – Entstehung, Sprache, Geschichte* (Tübingen: Mohr Siebeck, 2012), 155–166.
- Kim, Jong-Hoon, “Zu den Textformen der neutestamentlichen Zitate aus dem Zwölfprophetenbuch”, in Kreuzer, S./M. Sigismund(eds.), *Der Antiochenische Text der Septuaginta in seiner Bezeugung und Bedeutung*, (DS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3), ㄱ간.
- Kraus, W./M. Karrer (eds.), *Septuaginta Deutsch. Das griechische Alte Testament in deutscher Übersetz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 Kreuzer, S., “Von der Vielfalt zur Einheitlichkeit –Wie kam es zur Vorherrschaft des Masoretischen Textes?”, in A. Vonach et al. (eds.), *Horizonte biblischer Texte – FS Josef M. Oesch zum 60. Geburtstag* (OBO 196; Fribourg/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3), 117–129.
- Liddell, H. G. et al.(eds.), *A Greek-English Lexicon with Supplement* (Oxford: Clarendon Press, <sup>9</sup>1996).
- Lohse, E., *Die Texte aus Qumra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4).
- Menken, M. J. J./S. Moyise (eds.), *The Minor Prophets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T&T Clark, 2009).
- Muraoka, T.,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euven: Peeters, 2009).
- Rahlfs, A./R. Hanhart(eds.), *Septuaginta. Editio alter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 Thackeray, H. St. J., *The Septuagint and Jewish Worship*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1)

- Tov, E./R. Kraft(eds.), *The Greek Minor Prophets Scroll from Nahal Hever (8HevXIIgr)* (DJD VIII; Oxford: Clarendon Press, 1990).
- Tov, E.,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1992).
- Trever, J. C., *Scrolls from Qumran Cave 1: the Great Isaiah Scroll, the Order of the Community, the Pesher to Habakkuk from Photographs by John C. Trever* (edited by F. M. Cross, D. N. Freedman, J. A. Sanders) (Jerusalem: The Albright Institute of Archeological Research and the Shrine of the Book, 1972).
- Ulrich, E.(ed.), *The Biblical Qumran Scrolls. Transcriptions and Textual Variants* (Leiden: Brill, 2010).
- Ziegler, J.(ed.),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XIII Duodecim Propheta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31984).

## 검색어

본문비평

8HēvXIIgr

하박국

헬라/초기 유대주의

다중성과 유동성

## Die Textformen der hellenistisch-frühjüdischen Zeit ausgehend vom Habakkuk-Text der griechischen Zwölfprophetenrolle aus Naḥal Ḥever

**Jong-Hoon Kim**, Dr. Theol.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Nachdem die griechische Zwölfprophetenrolle aus Naḥal Ḥever (8HēvXIIgr) fragmentarisch gefunden worden war, wurde der Text der Rolle zuerst von D. Barthélemy erforscht. Aufgrund seiner sorgfältigen Untersuchung identifizierte Barthélemy die Textform der Rolle mit der sog. Kaige-Rezension, einer gemäß den hellenistisch/frühjüdischen Auslegungsprinzipien auf die Ausgangssprache oberflächlich gezielte Bearbeitung der sog. Ur-LXX. D.h. Die Kaige-Rezension war nicht erst im 2.Jh.n.Chr., wie Thackeray meinte, sondern spätestens schon im 1.Jh.

www.kci.go.kr

v. Chr. vorhanden, weil die Rolle selbst zwischen 1. Jh. v. und n. Chr. datiert wurde. In diesem Zusammenhang geht es beim vorliegenden Beitrag um die Textformen der hellenistisch/frühjüdischen Zeit. Es ist schon bereit bekannt, dass verschiedene Texttraditionen des AT in diesem Zeitraum nicht nur vielfältig sondern auch flexibel koexistierten. Insbesondere wollte der Beitrag beweisen, wie jene Vielfältigkeit und Flexibilität aus dieser Zwölfprophetenrolle erkannt werden können. Anders als die Meinung von Barthélemy zeigt das Ergebnis der Untersuchung anhand vom Habakkuk-Text, dass der Text der Rolle klar eine Mischform der verschiedensten Texttraditionen ist. D.h. als die Rolle abgeschrieben war, war der Proto-MT noch nicht überwiegend war, sondern verschiedene Texttraditionen koexistierten nicht nur vielfältig sondern auch flexibel.

## Key words

Textual Criticism

8HevXIIgr

Habakkuk

Hellenistic–Early Judaism

multiplicity and flexibility

- 투고일: 2012년 10월 04일
- 심사일: 2012년 10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05일

[www.kci.go.kr](http://www.kci.go.kr)